



## EAI 여론브리핑 제19호 (2007. 12. 13)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2007)  
2007 대선패널조사 5차 조사 분석

### “D-7 대선판세 최종점검”



- 기 획 :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 후 원 : SBS · 중앙일보
- 실 사 : 한국리서치
- 조사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2006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현황)
- 표 본 : 1차 패널 3,503명(2007. 4.25-4.28)  
2차 패널 2,911명, 유지율 83.1%(2007. 8.10-8. 13)  
3차 패널 2,524명, 유지율 72.1%(2007.10.17-10.20)  
4차 패널 2,382명, 유지율 68.0%(2007.11.25-11.27)  
5차 패널 2,208명, 유지율 63.0%(2007.11.11-11.12)
- 표본추출 : 지역·성·연령별 쿼터 할당 후 무작위 가구 추출하여 이후 6차 패널조사에 패널로 참여할 응답자 선정
- 조사방법 : 전화면접조사
- 가 중 치 : 지역(권)·성별·세대·학력별 가중치 부여

### [대선패널조사 연구팀 소개]





## D-7, 대선판세 마지막 총 점검

### 1. 이명박 지지층 변화 추적 : 골수 지지층 + 밴드웨곤 효과(편승효과)

- 이명박 지지층 60%는 1차 조사(4월)부터 지지층
- 25-27%는 4-8월, 박근혜 지지자
- 6.7%는 이회창 지지자
- 매 조사마다 미결정층 5-8% 흡수

강원택(숭실대 정외과)

5차 패널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는 매우 견고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후보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사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이들 가운데 60% 이상은 이미 지난 4월부터 이 후보를 지지하던 이들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금 지지자들의 80% 이상은 한나라당 경선 이후인 지난 8월부터 이명박을 지지하던 이들이었다. 각종 의혹 제기 및 정치적 공세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의 지지층은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현재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 가운데 25-27% 정도는 경선 이전까지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이들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6.2%로 나타났는데 이 중 12% 정도는 과거 박근혜 지지자들인 셈이다. 현재 이명박 지지자 가운데 1차, 2차 조사 때 이명박과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의 비율을 모두 합치면 87-88% 정도가 되는데 3차 조사에서 그 비율이 89.5%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후보 지지층을 효과적으로 흡수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전의 부동층 유권자들이 꾸준하게 이명박 후보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매 조사 때마다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5-8% 가량의 유권자들이 이번 조사에서는 이명박 지지임을 밝혔다. 특히 BBK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는 4차 조사 때 ‘아직 지지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던 7.4%가 이명박 지지로 돌아섰다.

이와 함께 이전에 군소 후보를 지지하던 일부 유권자들 역시 이명박 후보 지지로 입장을 바꿨다. 조사 시기가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층 유권자나 군소 후보 지지자의 이동은 사표(死票)를 피하고 싶다는 심리 때문이거나 승자에게 편승하려는 밴드웨곤 효과의 탓으로 보인다.

한편, 이회창 후보 지지층 역시 BBK 사건에 대한 검찰의 발표 이명박 후보로 옮겨간 이들이 적지 않았다. 현재 이명박 지지자의 6.7%가 이전에는 이회창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일찍부터 이명박을 지지해 온 다수 유권자들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고 박근혜 후보의 지지층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면서 대세론을 이끌어 온 것이 현재 이명박 지지의 기반이 되고 있다.



[표1] 패널조사로 본 이명박 현 지지층(5차)의 과거 지지경력

조사 차수	1차	2차	3차	4차
조사 시기 및 주요사건	4.25-28 예비후보 등록기	8.10-13 한나라당 경선 (8.19)	10.17-20 신당경선 (10.15)	11.25-27 이회창 출마 (11.7) 김경준 소환 (11.16)
이명박	63.4	60.4	89.5	81.9
박근혜	24.7	27.1	-	-
정동영	0.2	0.6	2.5	1.9
이회창	-	-	-	6.7
손학규	2.6	2.3	-	-
기타 후보	2.9	1.8	3.3	2.1
부동층	6.2	7.9	4.7	7.4



## 2. 대선의 남은 관전 포인트: 누가 2등을 차지할 것인가?

- 누가 지지이탈자를 막느냐가 관건
- 창 이탈자, 부동층으로 이동 없이 이명박지지 선회 경향 강해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소장, 고려대 정외과 교수)

검찰의 BBK의혹 수사 발표 이후 이명박 후보와 타 후보들 사이의 지지율격차가 커지면서 이번 대선은 이명박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이제 대선의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누가 2등을 차지할 것인가로 모아진다.

대선 승리만을 염두에 둔다면 2등 싸움은 무의미해보일 수 있다. 하지만 대선 이후의 정계 개편과 총선정국을 고려한다면, 2등의 위치와 타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는 각 후보들의 향후 정치적 입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회창 후보가 지지자들을 결집하여 대선 당일 2등을 차지한다면, 대선 이후를 구상하는 신당 창당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지지율이 감소하는 최근의 추세가 실제 대선득표율로 이어진다면 향후 정치적 행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정동영 후보의 경우에도 남은 기간 동안 총력을 기울여 확실한 2등을 차지하게 된다면, 대선 이후 민주신당 내의 계파경쟁과 총선과정에서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에게 뒤지거나, 범개혁세력으로 간주되는 문국현 후보와의 득표율 격차가 크지 못할 경우, 정동영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민주신당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정계개편의 소용돌이가 또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번 5차 조사결과를 보면 2등 경쟁에서 정동영 후보가 이회창 후보보다 유리한 상황이다. 우선 지지율에서 정후보가 16.7%를 얻어, 11.7%인 이 후보 보다 앞섰는데, 4차 조사에서 정후보가 15.1%, 이 후보가 14.5%로 박빙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이다.

두 후보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커진 가장 큰 이유는 이회창 지지층의 이탈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후보의 4-5차 조사 간 지지유지율이 90.4%이고, 정동영 후보의 경우는 82.6%인데 반해, 이회창 후보의 지지자는 불과 62.3%만이 계속 지지를 유지하고 37.7%가 지지를 철회하였다. 지지철회자 중 57%가 이명박 후보 지지로 돌아섰고, 26%는 지지후보가 없는 부동층이 되었다.

특히 지난 4차 조사에서 이회창 후보의 지지자 중 이명박 후보가 BBK 의혹을 받고 선거직 전까지 높은 지지율을 보일 때, 이회창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18.4%(59명)의 지지자 중에서 33.9%가 이번 조사에서 이명박 후보 지지로 돌아섰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검찰의 BBK 수사 발표가 이회창 후보 지지층의 이탈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정동영 후보는 4차 조사와 비교하여 지지율이 1.6% 상승하였는데, 4차 조사 지지자



333명의 17.4%인 58명이 지지를 철회했지만 신규로 유입된 지지자 95명 덕분에 미약하나마 지지를 상승효과를 얻었다. 4차 조사에서 이명제 지지자의 11.0%, 권영길 지지자의 15.1%, 문국현 지지자의 8.6%를 흡수하였다. 이 결과는 범여권의 단일화가 무산되더라도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반한나라 성향의 유권자들이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정동영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분명해지면 투표 당일 정동영 후보가 2등을 차지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후보가 부동의 1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이번 대선은 남은 후보들끼리 2등 경쟁을 벌이는 유례없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선거의 긴박감과 유동성이 떨어져 투표율이 상당히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는 단지 대통령 하나만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서 향후 국정운영과 정계재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민심표출의 장이기 때문에, 남은 대선기간동안 전개될 2등 경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표> 이회창 후보와 정동영 후보에 대한 지지이동

<정동영 지지이동>

4차	→		5차
333명 15.1%	유지 82.6%	275명	370명 16.7%
	이탈 17.4%	58명	
새로 유입		95명	

**이탈자 58명 중**

이탈자의 33%(19명)→ 이명박

이탈자의 31%(18명)→ 부동층

이탈자의 19%(11명)→ 문국현

이탈자의 7%( 4명)→ 이회창

이탈자의 10%( 6명)→ 다른 후보

<이회창 지지이동>

4차	→		5차
321명 14.1%	유지 62.3%	200명	259명 11.7%
	이탈 37.7%	121명	
새로 유입		59명	

**이탈자 121명 중**

이탈자의 57%(69명)→ 이명박

이탈자의 26%(32명)→ 부동층

이탈자의 10%(12명)→ 정동영

이탈자의 7%( 8명)→ 다른 후보



### 3. 투표율 차이가 지지분포 변화시키지 못해

이현우(서강대 정외과)

민주화 이후 대선투표율은 1987년 89.2%를 기점으로 매년 낮아져 지난 16대 대선에서는 70.8%였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투표율이 변함에 따라 각 후보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예전에 동원투표가 있었을 때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하고, 낮으면 여당에 유리하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정부에 의한 동원이 일정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자발적 투표가 많다는 것이고 이들은 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세대별로 볼 때 항상 젊은 층의 투표율이 장년층보다 낮다. 그리고 투표율이 낮아진다면 젊은 층에서의 투표율이 더 많이 낮아지게 된다. 그렇다면 젊은 층이 어떤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는가를 따져보면 후보들의 유불리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를 세대별로 보면 20대, 30대와 50대 이상에서 각각 30%p와 23%p 정도 차이가 난다.

투표성향을 보면 이명박후보 지지는 20대에서는 평균보다 5%p 정도 낮고 30대에서는 10%p 정도 낮다. 정동영후보의 30대에서 20.5%의 지지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다. 한편, 이회창후보는 세대별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투표의사에 관한 질문은 규범적이기 때문에 항상 설문결과가 실제투표율보다 높다. 이번 조사에서 투표확실층만을 대상으로 투표결과를 전망해 보면 [그림]에서와 같이 이명박 후보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보는 투표확실층에서 전체지지율보다 4.9%p 높은 51.5%의 지지를 보인다. 정후보는 투표확실층에서 0.4%p만의 득표를 더 얻어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회창 후보의 경우에도 차이가 거의 없다.

결국 투표율에 차이가 현재의 지지도 판세를 별로 바꾸지 못한다. 투표율이 낮아지면 독주하고 있는 이명박후보가 더 유리할 수 있으며,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해도 2위 다툼을 하고 있는 정동영후보와 이회창후보 중 어느 한쪽에 두드러지게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 50% 득표 의미는 정통성 강화, 15%는 반드시 넘겨야

이번 선거에서 이명박후보가 50% 이상의 득표를 한다면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된다. 13대 대선에서 노태우후보가 36.6%의 득표로 소수대통령이 되어 정권 초기부터 통치의 취약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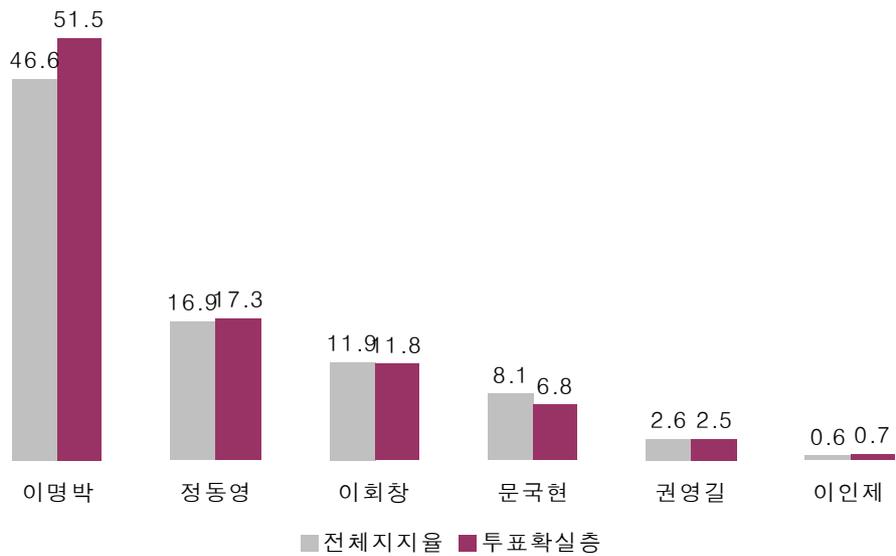
사실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무조건 최고득표자가 당선되는 최다득표(plurality)방식보다는 과반수 득표(majority)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과반수 득표는 어떤 투표방식으로도 당선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정권의 정통성을 강하게 인정받게 되고 정권초기 강력한 리더십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내년 총선에서도 집권당으로서 정권안정을 호소하는



득표명분을 세우는데 유리하다.

한편, 정동영 후보나 이회창 후보는 최소 15%의 득표는 필요하다. 선거비용을 완전히 보존 받기 위한 득표기준이 15%이기 때문이다. 향후 정치영향력을 생각해보면 국가에서 경쟁력 있는 대선후보라고 평가하는 지지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후보가 정치리더라고 자처하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림] 전체 후보지지율과 투표확실층의 후보지지율 비교





#### 4. 정치연대 ‘헛방’, 범여권 도덕성 공세 ‘헛방’

권혁용 (고려대)

□ 연이은 정치인 지지선언, 큰 효과 없어

5차 패널조사를 통해 지난 대선들에 비해 달라진 두 가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권력 획득을 위한 선거전 정치연합의 효과가 크지 않다. 최근의 정몽준 의원과 JP의 이명박 후보 지지선언 및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이회창 후보 지지선언은 지지기반의 외연적 확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몽준 의원과 김종필 전 자민련총재의 지지선언 이후 전체응답자의 14%만이 이명박 후보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62.7%는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18%가 이전보다 이 후보를 더 싫어하게 되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권에서 JP의 이명박 후보 지지선언 효과는 부정적 영향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21%였다. 연령별로는 50대의 18.2%와 60대의 34%,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응답자의 17.2%, 그리고 한나라당 지지층의 25.2% 및 이명박 후보 지지자의 24.8%가 정몽준-JP 지지선언으로 인해 이명박 후보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심대평 전 지사의 이회창 후보 지지선언 역시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75.7%가 이회창 후보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답했다. 이회창 후보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7.7%, 오히려 싫어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10.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대평-이회창 연합은 충청권에서도 전혀 파괴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긍정적 영향력 9.1%, 부정적 영향력 10.7%, 그리고 거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77.4%에 이르렀다. 노년층 및 이회창 후보 지지자 중에서만 심대평-이회창 연합의 효과는 미약하나마 발견되었다. 지난 대선들에서는 선거전 정치연합이 지지층 외연확대로 이어져 선거승리로 귀결되었다. 이번 대선에서 정치적 연대의 효과는 핵심지지층의 내부결속을 다지는 것으로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 후보선택기준으로서 “도덕성” 역할 줄어, 유권자의 후보 선택 정당화 결과

둘째, 도덕성 및 참신성이 주요한 후보선택기준으로 인식되었던 지난 대선들에 비해 도덕성 이슈는 상대후보의 지지층을 무너뜨리는 효과적인 캠페인이 되지 못한다. 전체응답자의 51.5%가 후보의 능력과 경력을 보고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18.6%만이 도덕성을 선택의 기준으로 꼽았다.

특히, 이명박 후보 지지자들은 능력과 경력이 선택의 기준이라 응답한 비율이 68.5%로 압도적인 데 반해 도덕성은 1.5%에 불과했다. 흥미로운 것은 도덕성을 선택기준으로 답한 비율이 이명박 지지자들 중에 계속 감소한다는 점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지지층만 후보자의 도덕성을 제1의 후보선택기준으로 꼽았을 뿐, 다른 정당 지지자들은 후보의 경력과 능력을 우선시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경향이 유권자들은 도덕성을 더 이상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능력 있는 대통령에 대한 선호가 후보선택에 영향을 미쳤고 유권자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선택에 맞추어 자기의 후보선택기준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표3] 이명박 후보 지지자 중 선택기준 변화(%)

패널조사	1차	2차	3차	4차	5차
능력과 경력	63.4	68.4	64.0	69.1	68.5
‘도덕성’	12.2	9.6	8.0	4.2	1.5

자세한 내용은 P14의 [표8] 참조할 것.

[표4] 전체 응답자 후보선택기준 변화(%)

패널조사	1차	2차	3차	4차	5차
능력과 경력	57.3	57.2	53.0	53.8	51.5
‘도덕성’	17.2	19.6	12.6	18.6	18.6
소속정당	4.8	5.7	13.8	11.0	11.7
정책(이념)*과 공약	11.2	7.6	11.0	7.8	10.0
당선가능성	4.3	5.4	4.5	5.3	4.2
출신지역	1.1	0.9	0.8	0.7	0.8
기타	4.0	3.6	3.9	2.7	2.9
모름 무응답	0.2	-	0.4	0.1	0.2

\*4차조사부터 ‘정책과 공약’ 대신 ‘이념과 공약’으로 물어봄



## 5. 5차 패널조사 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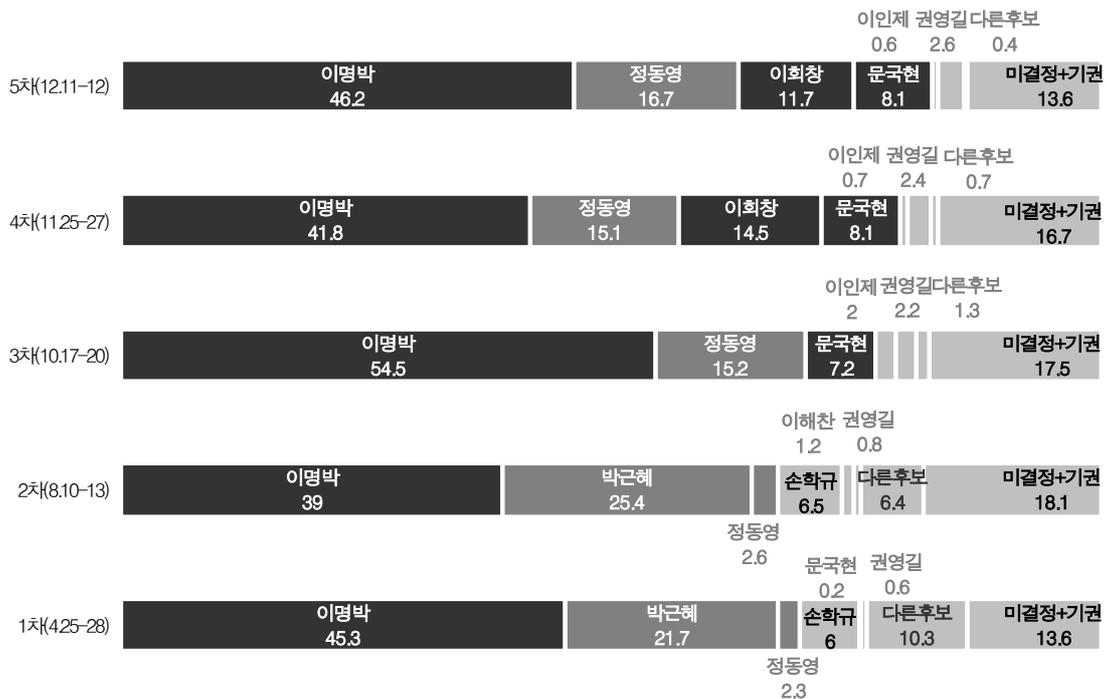
정한울(EAI여론분석센터 부소장)

### 1. 8개월 간 대선 지지율 변동

□ 장기변동 : 이명박 롤러코스트, 후보선출 후 정동영 · 문국현 정체, 이회창 상승 후 하락

검찰발표 이후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국면을 그리고 있지만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정체, 이회창 후보는 다소 지지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투표 미결정 혹은 기권 의사층은 줄어들고 있다.

[그림1] 대선지지후보 변동(%) 1-5차 조사 응답자 2208명



□ 단기변동 : 11월 후보등록 전후 2주간 변화

11월 후보등록 직후부터 D-7시점의 지지 변화를 추적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 △ 이명박 후보

BBK 검찰발표 후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다. 4차 이명박 지지층 90.4%가 계속지지, 이회창 지지로 이탈한 규모는 2.6%에 불과했다. 부동층 및 다른 후보 지지자들을



흡수하면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이회창 후보 이탈자 58명 중 33%인 19명을 흡수했다. 부동층 흡수력도 이명박 후보가 앞서고 있다. 4차 조사 당시 부동층이었던 368명 중 20.7%를 흡수하고 있다. 4차 조사에서는 이회창 후보가 3차 조사 부동층의 20%를 흡수했다. 5차 조사에서는 4차 조사 부동층의 20.7%를 이명박 후보가 흡수하고, 정동영 후보가 11.1% 흡수했다. 이번조사에서 이회창 후보는 6.8%의 부동층을 흡수하는 데 그쳤다.

### ▽ ㉔ 지지율 하락

5차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회창 지지층의 이탈심화 현상이다. 이명박 후보의 4-5차조사간 지지유지율이 90.4%, 정동영 후보의 경우 82.6%인데 반해 이회창 후보의 경우 불과 62.3%만이 계속지지를 하고, **37.7%**가 지지를 철회하였다. 그 중 21.4%가 이명박 후보 지지로 돌아섰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층 흡수력이 지난 4차 조사 시점에 비해 급속히 위축되었다.

특히 지난 4차 조사에서 이회창 후보의 지지자 중 이명박 후보가 BBK 의혹을 받고 선거직 전까지 높은 지지를 보였을 때 이회창 후보가 사퇴야 한다고 주장했던 18.4%(59명)의 지지자 중에서 33.9%가 이번 조사에서 이명박 후보 지지로 돌아섰다. 이는 4차 조사 지지자의 6%=0.184\*0.339)에 달하는 규모로서 이번 이회창 지지층 이탈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표5] 4차 이명박 후보 견재 시 이회창 후보 사퇴응답자 \* 5차 대선 지지

		대선지지5							부동층	Total
		이명박	이회창	정동영	이인제	권영길	문국현	다른후보		
[4차조사].이명박 후보가 중도에서 후보직을 사퇴 선거 직전까지 해야 한다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다면 이회창 후보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Count	20	32	0	0	0	2	0	5	59
		33.9%	54.2%	.0%	.0%	.0%	3.4%	.0%	8.5%	100.0%
관심이 없다	Count	35	153	10	1	1	2	0	18	220
		15.9%	69.5%	4.5%	.5%	.5%	.9%	.0%	8.2%	100.0%
잘 모르겠다	Count	7	7	1	0	0	0	0	1	16
		43.8%	43.8%	6.3%	.0%	.0%	.0%	.0%	6.3%	100.0%
Total	Count	6	8	1	0	0	2	1	6	8
		23.1%	30.8%	3.8%	.0%	.0%	7.7%	3.8%	23.1%	30.8%
	Count	68	200	12	1	1	6	1	32	321
	% of Total	21.2%	62.3%	3.7%	.3%	.3%	1.9%	.3%	10.0%	100.0%

### △ 鄭후보는 82.6%의 지지층 유지

4차 조사 지지자 333명의 17.4%인 58명이 지지를 철회했지만 새로 유입한 95표 덕분에 미약하나마 지지율 상승효과를 얻었다. 4차 조사 당시 이인제 지지자의 11.0%, 권영길 지지자 15.1%, 문국현 지지자 8.6% 흡수하였지만 이 들 지지층이 너무 얇아 전체 지지율에는 두드러진 상승효과를 갖기 힘들다.



[표6] 4차-5차 대선지지 변동

4차	5차								
	이명박	이회창	정동영	이인제	권영길	문국현	다른 후보	부동층 등	계
이명박(빈도)	835	24	16	2	8	8	0	30	923
4차->5차 비율	90.4	2.6	1.8	0.2	0.8	0.9	0.1	3.3	100.0
5차->4차 비율	81.8	9.2	4.3	15.4	13.6	4.5	0.0	10.0	41.8
전체 중 비율	37.8	1.1	0.7	0.1	0.4	0.4	0.0	1.4	41.8
이회창	69	200	12	1	1	5	1	32	321
4차->5차 비율	21.4	62.3	3.7	0.3	0.3	1.6	0.3	10.0	100.0
5차->4차 비율	6.8	76.9	3.2	7.7	1.7	2.8	11.1	10.7	14.5
전체 중 비율	3.1	9.1	0.5	0.0	0.0	0.2	0.0	1.4	14.5
정동영	19	4	275	2	4	11	0	18	333
4차->5차 비율	5.7	1.2	82.6	0.6	1.2	3.3	0.0	5.4	100.0
5차->4차 비율	1.9	1.5	74.3	15.4	6.8	6.2	0.0	6.0	15.1
전체 중 비율	0.9	0.2	12.4	0.1	0.2	0.5	0.0	0.8	15.1
이인제	4	1	2	6	0	1	0	3	17
4차->5차 비율	23.5	5.9	11.8	35.3	0.0	5.9	0.0	17.6	100.0
5차->4차 비율	0.4	0.4	0.5	46.2	0.0	0.6	0.0	1.0	0.8
전체 중 비율	0.2	0.0	0.1	0.3	0.0	0.0	0.0	0.1	0.8
권영길	6	0	8	0	34	2	0	3	53
4차->5차 비율	11.3	0.0	15.1	0.0	64.2	3.8	0.0	5.7	100.0
5차->4차 비율	0.6	0.0	2.2	0.0	57.6	1.1	0.0	1.0	2.4
전체 중 비율	0.3	0.0	0.4	0.0	1.5	0.1	0.0	0.1	2.4
문국현	9	6	15	0	4	125	0	19	178
4차->5차 비율	5.1	3.4	8.4	0.0	2.2	70.2	0.0	10.7	100.0
5차->4차 비율	0.9	2.3	4.1	0.0	6.8	70.6	0.0	6.3	8.1
전체 중 비율	0.4	0.3	0.7	0.0	0.2	5.7	0.0	0.9	8.1
다른후보	3	0	1	0	2	2	1	7	16
4차->5차 비율	18.8	0.0	6.3	0.0	12.5	12.5	6.3	43.8	100.0
5차->4차 비율	0.3	0.0	0.3	0.0	3.4	1.1	11.1	2.3	0.7
전체 중 비율	0.1	0.0	0.0	0.0	0.1	0.1	0.0	0.3	0.7
부동층 등	76	25	41	2	6	23	7	188	368
4차->5차 비율	20.7	6.8	11.1	0.5	1.6	6.3	1.9	51.1	100.0
5차->4차 비율	7.4	9.6	11.1	15.4	10.2	13.0	77.8	62.7	16.7
전체 중 비율	3.4	1.1	1.9	0.1	0.3	1.0	0.3	8.5	16.7
계	1021	260	370	13	59	177	9	300	2209
4차->5차 비율	46.2	11.8	16.7	0.6	2.7	8.0	0.4	13.6	100.0
5차->4차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중 비율	46.2	11.8	16.7	0.6	2.7	8.0	0.4	13.6	100.0

[표7] 3-5차 1강 2중 표 이동 세부 분석

이명박표 이동

3차			4차			5차
1204명	유지 70.5%	849명	923명 849+74	유지 90.4%	835명	1020명 835+85
	이탈 29.4%	355명		이탈 9.6%	88명	
	새로 유입	74명		새로 유입	185명	

**이탈자 355명 중**

- 이탈자의 46%(163명)-> 이회창
- 이탈자의 30%(108명)-> 부동층
- 이탈자의 13%( 45명)-> 다른후보
- 이탈자의 11%( 39명)-> 정동영

**이탈자 88명 중**

- 이탈자의 34%(30명)->부동층
- 이탈자의 27%(24명)->이회창
- 이탈자의 21%(18명)->다른후보
- 이탈자의 18%(16명)->정동영



### 정동영표

3차			4차			5차		
336명	유지 70.4%	236명	333명 236+97	유지 82.6%	275명	370명 275+95		
	이탈 29.6%	100명		이탈 17.4%	58명			
		새로 유입 97명			새로 유입 95명			

#### 이탈자 100명 중

이탈자의 32%(32명)-> 이회창  
이탈자의 29%(29명)-> 부동층  
이탈자의 18%(18명)-> 이명박  
이탈자의 12%(12명)-> 문국현  
이탈자의 9%( 9명)-> 다른 후보

#### 이탈자 58명 중

이탈자의 33%(19명)-> 이명박  
이탈자의 31%(18명)-> 부동층  
이탈자의 19%(11명)-> 문국현  
이탈자의 7%( 4명)-> 이회창  
이탈자의 10%( 6명)-> 다른 후보

### 이회창표

3차			4차			5차		
			321명	유지 62.3%	200명	259명 200+59		
				이탈 37.7%	121명			
		새로 유입			59명			

#### 이탈자 121명 중

이탈자의 57%(69명)-> 이명박  
이탈자의 26%(32명)-> 부동층  
이탈자의 10%(12명)-> 정동영  
이탈자의 7%( 8명)-> 다른 후보

## 2. BBK 발표의 여진

### (1) 검찰 발표 VS 검찰 탄핵/특검제/국정조사권

BBK 검찰 수사 발표 이후 정동영 후보 등 반 이명박 진영은 특검제 등을 주장하면서 날선 대립을 진행하고 있다. 일단 국민들은 모든 쟁점에 대해 무혐의라는 검찰발표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검찰발표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4.1%에 그친 반면, 불신한다는 반응은 62.3%에 달했다.

다른 후보 지지층은 80~90% 가량이 검찰 조사결과를 믿지 못한다고 했고,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거나 기권하겠다는 응답을 한 대선후보 미결정층에서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응답이 79.4%, 믿을 수 있다는 응답은 12.3%에 불과했다. 이명박 후보 지지자만이 61.4%가 신뢰한다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를 보였지만 34.9%는 검찰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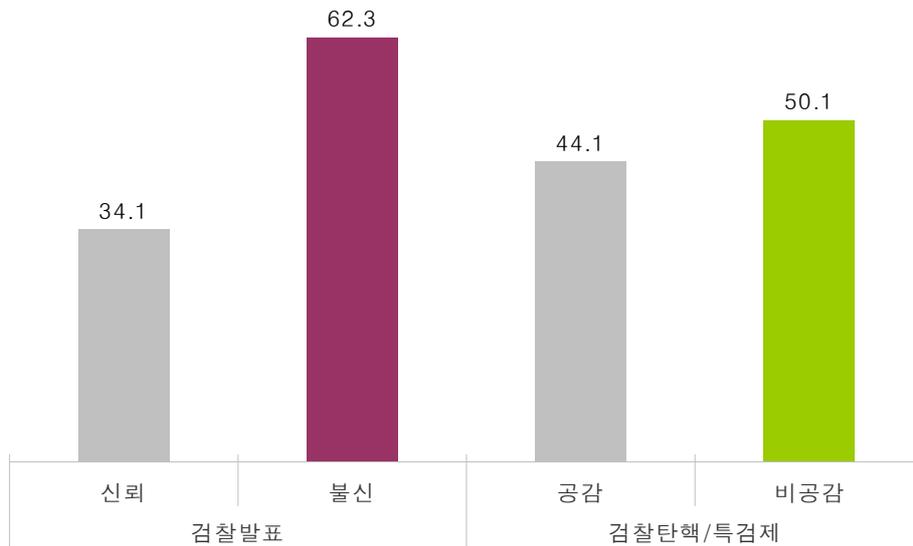
### (2) 여권의 특검제, 검찰총장 탄핵, 국조권 발동 주장에도 시큰둥

한편 대통합민주신당이 주장하는 검찰총장 탄핵 및 특검제, 국정조사권 발동에 대해서는 공



감한다는 의견이 44.1%,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1%로 비판적 여론이 약간 높았다. 결국 검찰발표에 신뢰하지 못하지만, 이에 대한 신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BBK 사건의 파장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2] 검찰 발표 신뢰여부 및 검찰탄핵/특검/국정조사권 발동 공감도(%)



(3) 검찰 발표 이후 이명박 후보 도덕성 평가에서 완만한 상승

여전히 이명박 후보는 6명 후보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난 3-4차 조사간 급격한 도덕성에 대한 평판의 하락을 경험했던 것에 견주어 볼 때 BBK 검찰 발표 이후 도덕성 평가에서 더 이상의 추가 하락은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8] 도덕성 평가 평균점수 변화

	3차 10월	4차 11월 25-27일	5차 검찰발표이후	
	문국현	5.8 ↗	6.1	
권영길	5.8 →	5.8	↗ 5.9	
정동영	5.4 ↘	5.3	↗ 5.5	
이회창		5.1	↗ 5.2	5 보통
이인제	4.6	4.5	↗ 4.5	
이명박	5.1 ↘	4.1	↗ 4.3	0 비도덕적



### 3. 이명박 후보 지지율의 동력

(1) 능력 있는 대통령 신드롬 대 도덕성 대결, 사라진 정책대결

- 이명박 지지자, 후보선택 기준 능력과 경력 68.5%, 후보 도덕성 1.5%
- 이 지지자 중 도덕성 꼽은 응답자 1차 12.2%→ 2차 9.6% → 3차 8.0%, 4차 4.2%→ 5차 1.5%로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 패널조사를 통해 이명박 후보 지지층의 경우 후보의 도덕성 대신 후보의 능력과 경력을 보겠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5차 조사에서는 능력과 경력을 중시하겠다는 응답이 68.5%, 소속정당을 보겠다는 응답이 15.6%, 이념과 공약 6.3%, 당선 가능성 5.8%였던 반면, 도덕성을 후보선택의 기준으로 본 응답자들은 1.5%에 불과했다.

- 대한통합민주당 이외 정당 지지자 및 정치적 무당파, 적극적 투표의사층에서도 후보의 경력과 능력을 우선시,

특히 정당지지 차원에서 보면 한나라당과 정권을 다투는 대한통합민주당 지지층에서만 도덕성을 제1의 후보선택기준으로 꼽았을 뿐 다른 정당 지지자들의 경우 후보의 경력과 능력을 우선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향이라 할 수 있는 무당파층에서도 54.5%는 후보의 경력과 능력을, 23.8%만이 후보의 도덕성을 후보선택의 기준으로 꼽아 이명박 후보가 강세를 이어갈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적극적 투표의향층의 경우 후보능력과 경력 54.3%, 도덕성 17.3%로 꼽았다.

- 반이명박 진영 후보 및 지지층, 도덕적 공세에만 매몰

도덕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비이명박 진영 후보 지지자들은 반대급부로 도덕성을 후보선택의 제일기준으로 꼽고 있다. 비이명박 진영 후보들은 도덕성 공격 외에 이렇다할 정책비전, 이념과 정책공약에서는 이렇다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지지층이 도덕적 이슈에 집착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 것 같다. 이는 능력 있는 정부, 능력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의 공격에 비이명박 후보 진영이 도덕성 공세에만 올인한 반작용이라 할 것이다.



[표9] 후보선택기준

[문4-1] 무엇을 보고 ( )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생각하셨나요?

Base=후보 지지자	사례수 (명)	후보의 능력과 경력	후보의 도덕성	후보의 소속 정당	후보의 이념과 공약	후보의 당선가능 성	후보의 출신지역	기타	무응답	계
		%	%	%	%	%	%			
■ 전 체 ■	(1897)	51.5	18.6	11.7	10.0	4.2	.8	2.9	.2	100.0
○ 대선 후보 지지 1차 ○										
이명박	(904)	63.4	12.2	9.1	9.0	3.7	.9	1.7	.0	100.0
안철수	(430)	50.0	16.5	17.8	7.8	5.7	.2	2.0	.0	100.0
박근혜	(110)	38.1	33.0	7.7	13.4	3.0	.0	3.3	1.4	100.0
김기춘	(57)	22.2	43.7	5.7	14.4	.0	6.4	7.6	.0	100.0
김기춘	(29)	35.4	42.3	5.2	14.4	2.6	.0	.0	.0	100.0
김기춘	(161)	27.1	25.0	20.2	15.3	5.2	1.1	6.0	.0	100.0
김기춘	(142)	32.6	31.7	9.8	10.6	4.5	.5	9.0	1.3	100.0
김기춘	(64)	54.1	20.7	6.3	12.4	5.9	.7	.0	.0	100.0
○ 대선 후보 지지 2차 ○										
이명박	(805)	68.4	9.6	8.2	8.0	3.6	.8	1.4	.0	100.0
안철수	(484)	46.3	17.9	18.6	7.9	6.3	.1	3.0	.0	100.0
박근혜	(121)	38.4	31.0	11.5	12.0	6.1	.0	1.0	.0	100.0
김기춘	(53)	20.4	43.9	7.2	19.6	.0	7.6	1.3	.0	100.0
김기춘	(146)	29.1	30.2	14.4	13.9	3.0	.0	8.3	1.1	100.0
김기춘	(219)	37.2	32.2	7.3	12.7	3.7	1.6	5.4	.0	100.0
김기춘	(70)	31.9	20.4	17.6	20.3	1.5	2.0	3.7	2.6	100.0
○ 대선 후보 지지 3차 ○										
이명박	(1131)	64.0	8.0	13.5	7.4	4.7	.6	1.7	.2	100.0
안철수	(305)	30.6	41.4	9.5	13.5	1.9	1.8	1.3	.0	100.0
박근혜	(38)	70.2	12.4	6.0	3.9	.0	2.5	5.1	.0	100.0
김기춘	(43)	13.5	26.6	30.9	17.1	9.1	.0	2.8	.0	100.0
김기춘	(140)	30.8	35.4	5.6	16.1	4.7	.0	7.4	.0	100.0
김기춘	(20)	14.9	24.3	11.4	24.9	4.1	.0	12.5	8.0	100.0
김기춘	(162)	36.9	31.5	6.1	11.9	5.0	1.6	7.0	.0	100.0
김기춘	(58)	37.3	25.5	9.9	16.2	4.1	.0	6.9	.0	100.0
○ 대선 후보 지지 4차 ○										
이명박	(893)	69.1	4.2	14.4	6.4	3.6	.6	1.6	.0	100.0
안철수	(288)	48.0	26.2	7.6	7.7	5.3	.7	4.4	.0	100.0
박근혜	(315)	23.3	40.6	11.1	18.8	1.8	2.3	2.1	.0	100.0
김기춘	(13)	54.7	.0	.0	24.0	13.8	7.4	.0	.0	100.0
김기춘	(50)	17.2	24.7	28.9	18.3	10.9	.0	.0	.0	100.0
김기춘	(159)	38.1	36.0	3.7	13.5	3.5	.0	5.3	.0	100.0
김기춘	(7)	44.3	26.3	8.2	.0	.0	.0	.0	21.2	100.0
김기춘	(5)	.0	83.1	16.9	.0	.0	.0	.0	.0	100.0
김기춘	(123)	41.8	23.6	6.9	10.4	8.6	.0	8.7	.0	100.0
김기춘	(44)	41.0	16.5	15.1	11.0	8.6	.0	3.7	4.1	100.0
○ 대선 후보 지지 5차 ○										
이명박	(1020)	68.5	1.5	15.6	6.3	5.8	.4	1.8	.0	100.0
안철수	(259)	50.1	32.9	1.6	7.8	2.8	.5	3.5	.7	100.0
박근혜	(370)	17.8	42.4	10.9	17.8	3.7	2.5	5.0	.0	100.0
김기춘	(13)	80.8	.0	13.6	5.6	.0	.0	.0	.0	100.0
김기춘	(58)	5.9	43.1	29.3	21.0	.0	.0	.8	.0	100.0
김기춘	(178)	39.2	39.7	.0	14.9	.4	.5	4.4	.9	100.0
○ 투표 방식의 영향 ○										
이명박	(1489)	54.3	17.5	11.9	9.5	3.5	.5	2.7	.0	100.0
안철수	(362)	42.6	22.2	10.1	12.5	7.0	2.3	2.8	.5	100.0
박근혜	(28)	29.3	29.0	24.0	3.8	2.5	.0	5.8	5.7	100.0
김기춘	(18)	35.6	20.4	11.1	11.0	12.0	.0	9.9	.0	100.0
○ 정당 지지도 5차 ○										
이명박	(943)	63.0	6.2	16.7	7.0	4.5	.5	2.1	.0	100.0
안철수	(286)	26.4	39.7	11.7	15.5	2.9	1.7	2.1	.0	100.0
박근혜	(40)	42.9	26.2	9.0	13.3	2.2	4.5	1.9	.0	100.0
김기춘	(139)	29.6	28.4	14.3	16.1	3.6	.0	6.9	1.1	100.0
김기춘	(9)	53.3	15.2	6.4	19.6	5.5	.0	.0	.0	100.0
김기춘	(70)	42.7	38.6	.0	16.1	2.6	.0	.0	.0	100.0
김기춘	(23)	18.1	49.9	.0	16.0	.0	.0	16.0	.0	100.0
김기춘	(387)	54.5	23.8	1.8	9.1	5.5	1.1	3.8	.5	100.0
김기춘	(0)	.0	.0	100.0	.0	.0	.0	.0	.0	100.0

(2) 경제투표의 영향력 커저

□ 분야별 국정능력 평가, 이명박 전 분야 강세 속 경제분야 리더십 평가 압도

1강 2중 후보를 대상으로 실제 각 분야별 국정운영 능력을 물어본 결과 이명박 후보는 남북관계를 제외한 경제, 정치, 교육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경제 분야의 경우 6.9점으로 다른 후보를 압도했다. 이회창 후보의 경우 정치 분야와 교육 분야에서는 각각 5.9, 5.6점으로 이명박 후보에 뒤지지 않았다. 남북관계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6.1점으로



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운영능력에 대한 우위가 전반적인 이명박 후보의 국정능력에 대한 고평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10] 각 분야별 빅3 국정능력 평가

	1) 남북관계	2) 경제분야	3) 정치분야	4) 교육분야
① 이명박	5.4점	6.9점	5.9점	5.6점
② 정동영	6.1점	5.3점	5.5점	5.5점
③ 이회창	5.3점	5.5점	5.9점	5.6점

(0: 매우 미흡하다, 5 보통, 10 매우 충분하다)

#### 4. 17대선은 경제선거?!

역대선거 중 이번 선거만큼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경제’이슈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패널조사가 차기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1-4차까지 물어본 결과 경제와 연관된 양극화와 성장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뽑은 응답자가 과반수를 계속 넘었다.

##### 1. 이슈구조 본 경제선거

- 최우선 국정과제 : 경제양극화 + 경제성장 과반수 넘어  
2002년 선거의 최대 이슈인 정치개혁을 꼽은 응답자는 6-8%내외
- 양극화문제=복지주의, 경제성장=성장주의의 이분법 깨져

주목할 점은 경제위기론이 확산되면서 경제를 중시하는 여론이 확산되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경제양극화의 문제와 성장의 문제로 나누어 물어본 결과 유권자들은 양극화 문제에 더 큰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둘 모두 경제관련 이슈로 본다면 경제문제에 대한 압도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선거에 미치는 미디어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인 프레임 이펙트와 프라임 이펙트 개념을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성장 프레임(frame)이 안보 혹은 정치개혁 프레임을 압도한다는 식의 해석이 제기되는 데, 이는 용어의 혼란을 일으킨다.

프레이밍 이펙트(framing effect)란 특정 이슈가 제기되는 방식(the way to be presented)과 관련된 것이다. 가령 같은 집시법 문제를 접근할 때 ‘집회시위의 자유’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식과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편의침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이 중 하나를 언론이나 정치세력이 집중 부각시킬 때 프레이밍 이펙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분야의 이슈 중 특정이슈에 웨이트가 부가되어 중심이슈로 부각되는 현상은 프라임(Priming) 이펙트와 관련이 된다. 이번선거에서 경제이슈가 다른 이슈를 압도하는 현상은 아젠다 셋팅이나 프라임(priming effect)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경제이슈를 접근할 때 양극화 논리와 성장의 논리 중 특정의 논리가 부각시킬 경우 프레이밍 이펙트



(framing effect)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양극화 문제를 중시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응답으로 볼 때 한국에서 성장 프레임이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표11] 차기정부 최우선 국정과제

차기정부 국정과제	1차	2차	3차	4차
경제양극화	43.6	37.9	37.7	38.8
경제성장	28.7	33.6	33.2	32.8
삶의 질 개선	7.9	6.8	7.6	6.7
정치개혁	6.2	5.0	4.5	6.2
국제경쟁력 강화	5.2	6.4	5.1	5.6
국민통합	4.2	3.8	4.0	4.5
남북관계 개선	3.2	4.0	4.3	4.1
국가안보 강화	-	1.4	1.0	0.9
기타	0.7	0.8	1.7	0.3
모름/무응답	0.2	0.3	0.8	0.1

□ 양극화 프레임에서도 이명박 후보가 우세

중요한 것은 과거와 달리 유권자들이 양극화문제=복지주의 vs 경제성장=성장주의의 이분법적 사고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 과거에는 복지/양극화 프레임이 부각되면 진보/개혁세력이 유리하고, 성장 프레임이 부각되면 보수진영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그러한 이분법적 구분이 많이 약화되었음이 확인된다. 물론 경제성장을 차기정부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경우 가장 잘 해결할 후보로 67.9%가 이명박 후보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 완화의 경우에도 이명박 후보 37.7%가 가장 앞섰고, 문국현 후보 16.3%, 이회창 후보 15.9%, 정동영 후보는 12.5%에 불과했다. 경제이슈에 프레이밍 효과가 나타나는 이상 어떤 경제 프레임에서도 이명박 후보는 우세한 구조이다.

현 이슈구조를 분석해보면 정동영 후보의 경우 남북관계개선 이슈에, 이회창 후보의 경우 안보이슈에 프레이밍 이펙트가 발생했다면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표12] 과제별 가장 잘 할 것 같은 후보(4차조사, %)

% within 문14.[t1,2,3] 다음 중에서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영길	문국현	이명박	정동영	이인제	이회창	다른 후보	없다	모름/무응답	Total
국민통합	3.0%	8.0%	33.0%	29.0%	1.0%	15.0%		10.0%	1.0%	100.0%
경제적양극화완화	7.7%	16.3%	37.7%	12.5%	1.1%	15.9%	.4%	6.5%	2.0%	100.0%
남북관계개선	2.2%	2.2%	16.7%	57.8%	2.2%	10.0%		8.9%		100.0%
정치개혁	8.0%	12.4%	29.2%	10.2%	2.2%	16.8%		19.7%	1.5%	100.0%
경제성장	1.2%	5.4%	67.9%	7.3%	.8%	13.1%	.0%	2.6%	1.7%	100.0%
국제경쟁력강화	.8%	17.2%	48.4%	9.0%	2.5%	14.8%		5.7%	1.6%	100.0%
삶의질개선	7.5%	17.8%	28.1%	8.9%	1.4%	7.5%	.0%	18.5%	10.3%	100.0%
국가안보강화	9.5%		14.3%	9.5%		33.3%		9.5%	23.8%	100.0%
Total	4.8%	11.5%	45.8%	12.8%	1.2%	14.3%	.1%	7.1%	2.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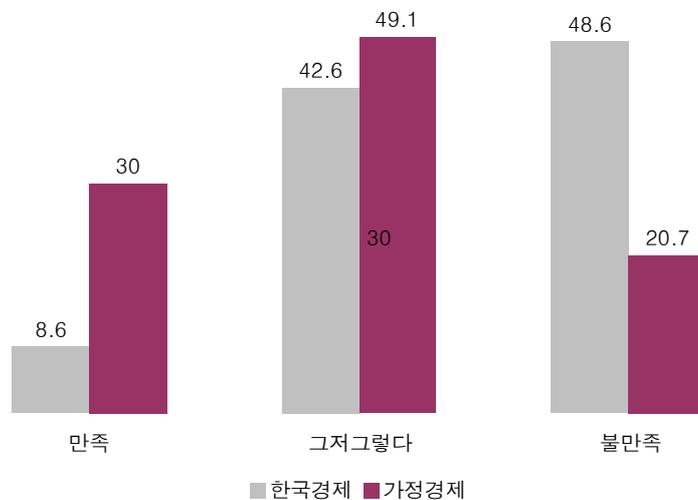


- 경제투표의 관점에서 본 경제선거
- 가정경제 상태 비교적 양호, 국가경제에 대한 불안 심화
- 경제공식 경제 불안 + 정부 탓 = 이명박지지

17대 대선에서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현상을 주로 회고투표(reprospective voting)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즉 ‘현 집권정부(여당)의 경제실적에 대한 보상 혹은 처벌’의 관점에서 유권자가 투표선택을 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나 여당은 거시적인 경제지표가 나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섭섭해 하는 눈치지만 정작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시지표가 아니라 국민개개인이 어떻게 체감하느냐다.

5차 조사에서 가정경제와 한국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대체로 ‘그저 그렇다’는 미온적인 태도가 많은 가운데 가정경제 상태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6:4로 많았던 반면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사람에 비해 불만족하는 사람이 다섯 배를 넘었다. 결국 현재 국가경제상태에 대한 인식이 가정경제에 대한 인식보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대선 투표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3] 한국경제 및 가정 경제 만족도



- 국가경제 만족하는 사람 정동영 지지 35.1%, 이명박 지지 26.2%
- 불만족 하는 사람 정동영 지지 11.0%, 이명박 지지 52.5%

실제로 국가경제에 만족하는 층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35.1%로 이명박 후보를 누르고 1위를 한 반면, 반면 국가경제에 불만인 사람들에서는 이명박 후보 지지가 52.5%로 평균지지율을 뛰어넘고 있다. 경제평가가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표13] 국가경제 인식에 따른 투표성향

		대선지지5								Total
		이명박	이회창	정동영	이인제	권영길	문국현	다른후보	부동층등	
국가 경제 만족 도	만족	50 26.2%	15 7.9%	67 35.1%	2 1.0%	6 3.1%	24 12.6%	1 .5%	26 13.6%	191 100.0%
	그저그렇다	406 43.2%	85 9.0%	184 19.6%	9 1.0%	22 2.3%	95 10.1%	3 .3%	136 14.5%	940 100.0%
	불만족	564 52.5%	160 14.9%	118 11.0%	2 .2%	30 2.8%	59 5.5%	5 .5%	136 12.7%	1074 100.0%
Total		1020 46.3%	260 11.8%	369 16.7%	13 .6%	58 2.6%	178 8.1%	9 .4%	298 13.5%	2205 100.0%

- 경제투표, 경제 호전 혹은 악화 책임을 누구에게 두느냐가 중요
- 경제 잘 되면 개인/기업 덕, 안 좋은 건 정부/정치권 탓

국가경제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 원인은 기업 혹은 개인의 역할에서 찾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책임을 정부(57.7%) 혹은 정치권(31.7%)에서 찾는다. 가계경제의 경우에도 만족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이 72%였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영향이라고 89.6%가 답했다. 이는 국가경제나 가정경제에 대해 그 악화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인식할수록 그리고 그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사람들일수록 정부 및 여당 후보에 대해 책임을 묻는 회고투표 성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13] 한국경제 만족 여부 누구탓인가?

		한국경제 상태 누구탓?					잘 모름/ 무응답	Total
		정부	정당 및 국회	기업	국민 개개인	기타		
국가경 제만족 도	만족	58 30.5%	5 2.6%	61 32.1%	42 22.1%	22 11.6%	2 1.1%	190 100.0%
	불만족	620 57.7%	340 31.7%	44 4.1%	28 2.6%	34 3.2%	8 .7%	1074 100.0%
Total		678 53.6%	345 27.3%	105 8.3%	70 5.5%	56 4.4%	10 .8%	1264 100.0%

[표14] 가정경제에 정부가 미친 영향

		가계경제정부영향			Total
		영향미침	영향안미침		
가정경 제만족 도	만족	Count 185	476	661	
		% within 가정 경제만족도	28.0%	72.0%	100.0%
	불만족	Count 405	47	452	
		% within 가정 경제만족도	89.6%	10.4%	100.0%
Total		Count 590	523	1113	
		% within 가정 경제만족도	53.0%	47.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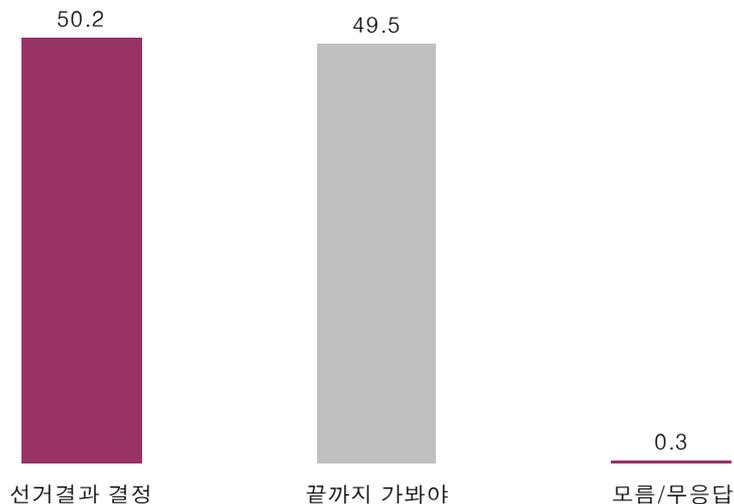


## 5. 변수는 남아있는가?

(1) 국민들은 여전히 변수가 있다고 본다?

이번 조사에서 재미있는 결과는 이번 대선 판세가 결정된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대해 1위 후보와 여타후보와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응답이 49.5%, 누가 당선될 것인지 이미 결정되었다고 본다는 응답은 50.2%로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선거결과를 불확실하게 판단할 구체적인 근거를 찾기 힘든 조건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역대선거에서 선거 일직전까지 큰 막판 변수들이 등장했던 경험의 산물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림3] 선거판세 예측



(2) 남은 변수 점검

- 지지층 결집도 및 강도, 적극적 투표의사층 : 이명박 후보 지지층이 강해
- 투표율 높건, 낮건 이명박 후보 유리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4-5차 지지층 유지율로 본 지지층 결집도는 이명박 후보가 90.4%로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다. 지지강도를 보더라도 이명박 후보 지지층의 79.1%가 강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고, 이회창 후보 지지층이 73.4%, 정동영 후보 지지층은 69.8%로 지지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명박 후보 지지자 중 82.9%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이회창 후보지지자의 74.8%, 정동영 후보 지지자의 77%, 문국현 후보 지지층의 경우 63%만이 반드시 투표하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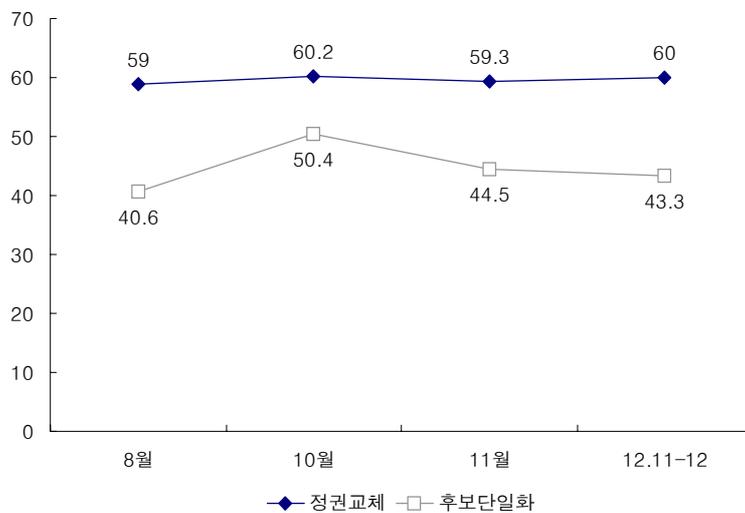


다는 응답을 보였다. 따라서 투표율이 높건, 낮건 적극적 투표의사층이 높은 이명박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투표율이 낮을수록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 범여권 후보단일화

정권교체론에 대한 60% 전후의 지지가 유지되는 가운데 반한나라당 후보단일화론의 경우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전후로 진행된 10월 조사에서 후보단일화에 대한 기대가 잠시 상승한 이후 지지부진한 논의과정과 범여권 후보들의 지지율 정체로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주춤한 상태이다.

[그림4] 정권교체론 VS 후보단일화론 공감도(매우공감+공감하는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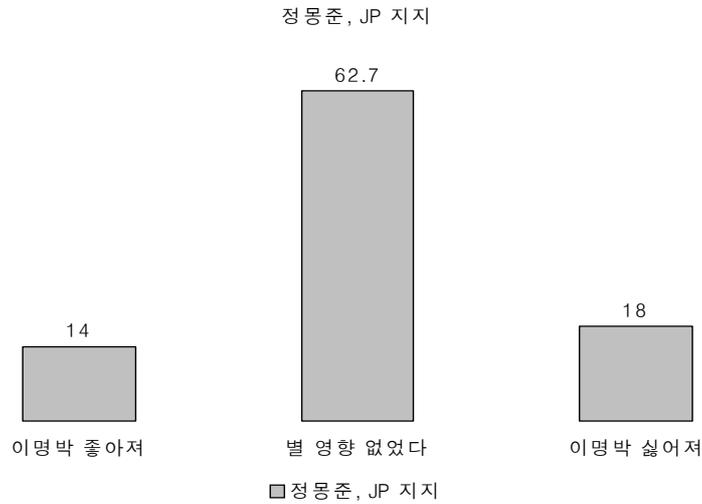


□ 각 후보 진영의 선거 앞둔 세 불리기는 큰 변수 못돼, 오히려 부정적 이미지 강화 내부 단속 효과 노린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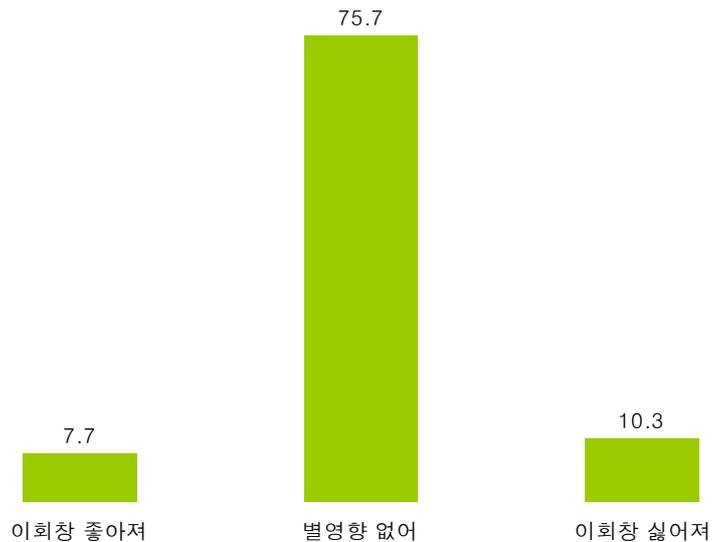
- 정몽준· JP지지, 충청권은 효과 미미, 역효과 커, 영남에서는 효과 미미, 약간의 상승효과 충청권에서 별 영향 안 주었다 61.5%, 이명박 후보 싫어하게 되었다 19.6% 별영향 안주었다 경남61.9%, 경북 64.3%, 약화 경남 15.0%, 경북 15.7%, 개선 경남 15.4%, 경북 17.2%
- 충청권에서도 심지사지지 창 지지에 별 영향 안주었다 77.4%



[그림5] 정몽준, JP 이명박 후보지지 효과



[그림6] 심대평 후보의 이회창 후보지지 효과



□ 선거판세 변화에 따른 사표방지심리, 지지후보의 당선가능성 낮아진다면?  
사표방지투표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가장 이익, 이명박 후보는 별 이득 못 봐

이명박 후보 지지층, 그래도 이명박 43.5%, 이회창지지 23.9%, 정동영지지 8.2%  
 정동영 후보 지지층, 그래도 정동영 53.5%, 문국현지지 11.6%, 이회창지지 11.5%  
 이회창 후보 지지층, 그래도 이회창 48.9%, 이명박지지 18.6%, 정동영지지 10.6%  
 이인제 후보 지지층, 그래도 이인제 79.9%, 정동영지지 14.6%, 이명박지지 5.6%  
 문국현 후보 지지층, 그래도 문국현 61.5%, 정동영지지 11.9%, 이회창지지 5.6%  
 권영길 후보 지지층, 그래도 권영길 79.9%, 정동영지지 11.0%, 이회창지지 7.2%



지지후보의 당선가능성이 희박해질 경우 사표방지 심리에 따른 지지후보 변경여부를 물어본 결과 정동영 후보가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후보, 이회창 후보 지지층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낮다면 이회창 후보 혹은 이명박 후보로 교차하여 지지를 하겠다는 응답자 비율이 많았다. 그러나 모든 유력 후보들의 지지자 들 중 지지후보의 당선가능성이 없어질 경우 10%전후가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회창 후보가 뒤를 이었다.

다만 현 군소후보 지지자들은 1강 2중 후보들에 비해 당선가능성과 상관없이 자신이 지지후보를 지지하는 진실한 투표(sincere voting) 비율이 높다. 이를 종합해보면 사표 방지심리로 인한 급격한 표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15] 지지후보 당선가능성이 낮아질 경우 후보선택 변화

[문4-4] 지지하시는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Base=후보 지지자	사례수 (명)	권영길 후보를 지지를 하겠다	문국현 후보를 지지를 하겠다	이명박 후보를 지지를 하겠다	이인제 후보를 지지를 하겠다	이회창 후보를 지지를 하겠다	정동영 후보를 지지를 하겠다	다른후 보	투표하 지않을 것이다	모음/ 무응답	계
		%	%	%	%	%	%	%	%	%	%
■ 전 체 ■	(1907)	6.4	14.2	27.6	2.4	22.5	17.7	1.9	6.3	1.1	100.0
○ 대선후보지5자○	(1020)	2.7	9.5	43.5	2.3	23.9	8.2	1.5	7.0	1.5	100.0
이명박	(259)	1.5	7.7	18.6	1.6	48.9	10.6	2.7	7.4	.9	100.0
이회창	(370)	7.5	11.6	6.2	2.0	11.5	53.5	1.3	5.7	.7	100.0
정동영	(13)	.0	.0	5.6	79.9	.0	14.6	.0	.0	.0	100.0
문국현	(58)	79.9	1.1	.0	.0	7.2	11.0	.0	.8	.0	100.0
이인제	(178)	9.0	61.5	6.2	.8	5.6	11.9	1.7	3.4	.0	100.0
권영길	(9)	.0	13.8	.0	.0	14.7	.0	57.6	8.7	5.2	100.0